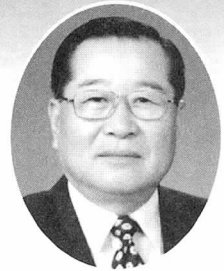


# 신년사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댁내에 축복과 보람이 가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이용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부의 창출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의료분야에서도 PET-CT 등 최첨단 진료장비의 꾸준한 개발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 밖에 산학연 전반에 걸쳐 방사선이용으로 국가경제와 기술개발에 힘써 오신 관계분야의 모든 전문가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방사선이용기관수가 해마다 10% 이상의 증가추세를 지속하면서 2006년 동기 3,000여 기관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방사선이용기술이 BT, ET, NT, IT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핵심기술로 자리잡아 미래의 과학기술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방사선이용기술을 소홀히 했던 정체기에는 물론 그 육성에 활로를 찾은 현재까지 꾸준히 방사선이용증진을 위해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계의 체계적인 기술정보지원으로 방사선안전문화 창달에도 노력하는 등 국민에게 방사선기술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계도사업도 꾸준히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협회는 제6차 세계동위원소대회(GICI)를 2008년도의 국내 유치로 방사선기술의 정보 교환과 우리나라의 방사선기술분야의 입지와 위상을 홍보하는 등 동 대회의 내실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와 산학연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방사선이용기술이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아주 유용한 기술 분야임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년 새해아침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회장 채 화 목